

김관영 도지사 등 中 방문 세일즈 행보

전북자치도 “의미 있는 성과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김관영 도지사 등이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추진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사무국, 대외협력과 3개 기관 담당자들이 도청 기자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일행의 중국 방문 세일즈 행보와 관련,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과 브리핑을 열었다.

제일 먼저 기업유치 추진단 박선에 팀장이 중국 선전에서의 김관영 도지사의 투자설명회 개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에 따르면, 김 지사는 선전에 도착해 제대로 여장을 풀 시간도 없이 선전 소재 2차 전자, ESS 바이오 등 첨단 분야 50여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주요 기업은 2차전자 음극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인 BTR 사, 선전 최초의 상장기업인 선전에너지, 휴대폰 배터리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신왕다 등 내로라하는 기업으로 중국 선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참여했다. 여기에서 투자설명회 결과 시노메드사와 Sameach life 사 2개 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노메드사는 2007년에 설립된 강서성 소주에 본사에 둔 의약품 제조회사로 주 제조품목은 주사기, 봉합사, 진공 채혈 튜브, 마스크 등 3,000여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300여명의 직원과 500여개의 협력사, 1만 평방미터 면적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주 제품을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 8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어 연평균 3천만 미국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Sameach Life사는 2018년에 미국에서 자본금 3,000억원으로 설립된 금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 추진단 박선에 팀장이 중국 선전에서의 김관영 도지사의 투자설명회 개최에 따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시모네드사 · Sameach life 등과 투자 양해각서 체결 새만금 관광 복합리조트 기업 대표와 투자 협의 성과 10월 개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활동 전개도 11월 장수 엔청 투자무역박람회 개최 참여 합의까지 도민들 “전북·중국, 예전과 같이 관계 개선되기를”

용투자 펀드 회사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약 2억 달러(한국 자본 2,700억원)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를 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를 맞아 모더니에 투자를 해 큰 성과를 낸 기업이다.

다음날 조찬 간담회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관광 분야 투자를 희망하

는 마카오의 유명 기업인 대표 일행과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관광개발에 대하여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새만금개발 관련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담당 관계자와 추후 긴밀한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화웨이 사를 방문해서 본사 임원 면담 및 디지털 파워관을 사할했다.

화웨이는 1987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통신장비 회사로 중국 내 휴대폰

점유율이 아주 높은 기업이다. 또한 화웨이는 2021년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해서 2차 전기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유명 기업이기도 하다.

제47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관련해서는 대회 담당인 정옥균 주무관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운영위원회에 40여명이 참석해서 세계 각국의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전북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 위원에게 한인 비즈니스 대회 준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기업 전시, 환영 행사 등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행사 개최 예정임을 설명했다. 앞으로는 도 자체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업 전시관 조성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는 등 대회 준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만든다

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연구 역량 강화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위생 시험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5개의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 등 농장방문 시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소 렙프스킨병 발생 사례를 분석 후 논문으로 작성하여 한국동물위생학회에 전국 최초로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 렙프스킨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연이은 발생에 따른 연중 비상근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들이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담 전염성 기관지염의 유전자 변이양상 분석 △육용 종계의 조류 메타뉴모바이러스 항체 조사 △돼지부종병 항체 및 양성률 조사 △돼지 호흡기 질병의 항체 모니터링 조사 △도내 사육소에서 첫 렙프스킨병 발생 보고 등 소, 돼지, 닭에서 많은 발생으로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5개의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논문집으로 발간해 제작·배부하여 전국 동물방역 위생기관, 축산협회, 수의과대학 등 관련 기관과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5월 중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산업동물(소, 염소, 닭 등)과 더불어 반려·유기견 등으로 축종을 다양화해 추진한다.

담 전염성 기관지염의 유전자 분석, 한우의 병원성 대장균 특성 분석, 도축장 출하 염소의 질병 현황 및 반려·유기 동물의 조류인플루엔자 분포 실태 조사 등 총 4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동물에 빈번한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질병과 더불어 최근 많이 증가한 반려동물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실태를 조사해 도내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관리 및 예방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추가경정예산 최종 의결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지난 1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기간 무주군의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읍·면 행정장문을 진행하며 읍·면 직원을 격려하고 대민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은 ‘무주군 경영 수익전략 및 소규모 공사 관급자재 발주 관리’와 관련 5분 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무주군의회는 세출 요구액 5,071억3,176만원 대비 0.0% 감액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개정되는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군정의 치밀한 행정력을 강조하는 만큼 면밀히 살펴 이행해달라”고 말하고 제2회 무주산업영화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 교육소통협력국 등 대상 추경 심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 대상 확대 필요”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안)는 13일 오전, 도청 교육소통협력국, 농림기술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에 이어 오후에 도교육청 추경 심사 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가졌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건강하고 행복한 새마을을 생생 결의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 장소 등 사업 계획에 대해 묻고, 산출내역이 행사장 임차 등으로 모호하며 행사성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본예산으로 세부적인 행사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해 봉사대상이 대학생인 이유에 대해 묻고, 자원봉사 대상을 학생이나 일반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에 대해 묻고, 외국인 노동자가 시 군에 더 많은 데 전주시만 지원하

는 것과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해 자원봉사자는 ‘전북의 얼굴’이라고 말하며, 유니폼 제작 시 제대로 된 제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본부 및 세종사무소 주요 업무 활동지원과 관련해 파견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와 민원 사항에 대해 묻고, 약취 민원 해소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외국인 노동자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 위치 선정에 있어 전주시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상주인력 1명의 사업 담당 인건비 지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예산을 반

영한 것은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며, 본 사업은 미래산업국 업무에 해당 되는 것 같은데 소관 부서 지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유용곤 총 실용화 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 기술원의 업무와 연구 실적에 대해 묻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유용곤총 사업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대과중 씨 없는 수박 수경재배 연중생산 시스템 확립 사업과 관련해 장소 등 사업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씨없는 수박 관련 별도의 설명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이 본예산 400명에서 800명으로 2배가 증가하고 지원 단가도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과 관련해 취업박람회 행사 방법과 일자리 연계 지원 성과에 대해 묻고, 지역별 산업·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봄철 나무심기 완료

1443ha에 127억원 투입, 358만 그루 심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국토의 62.6%가 산림으로 OECD 국가 중 산림율이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인 우리나라의 자원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기반을 구축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흡수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나무심기)을 완료했다.

봄철 조림사업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27억원을 투입해 1,443ha에 총 358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추진했다.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 시키고자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활동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저감, 산림경관 개선, 목재생산 목적 등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나무를 심은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나무의 성장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조림 1~3년차 동안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조림 5~10년차에 해당하는 필지는 산주 신청에 가치치기와 숲이주기 등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도 벌인다.

/이만호 기자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3일 군산 어청도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청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김중훈 경제부지사, ‘다함께 민생살리기’ 일환 간담회 국가어항 정비·섬 해양교통여건 개선 사업 등 점검도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3일 군산 어청도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중훈 부지사는 군산 어청도 주민들의 민생과 함께 어항시설 및 재난안전 시스템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먼저 어청도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해결방안도 찾고자 했다.

또한 어청도의 주요사업(어청도 국가어항 정비, 섬 해양교통여건 개선, 해상교통력 단지개발, 어청도 해안산책개설 사업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했다.

그리고 운동동 전북자치도 도민안전

실정과 함께 재난상황 및 대피 등 신속 알람에 중요한 자동음성통보장치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현황을 점검하고, 재난감시용 CCTV의 작동여부 및 시스템 가동 등을 점검했다. 가뭄으로 인한 비상공급 용수 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현장도 방문해 유지관리 및 가동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내를 돕는 어청도 항로표지관리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중훈 부지사는 “섬지역의 특성상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의식이 특히 팽배하다”며, “섬 관광 활성화 및 안전한 도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